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제주항공 7C2216 여객기사고
희생자분들을 추모합니다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합니다”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5년도 제12호

대한체육회를 더 나아가게, 체육인을 힘나게

대한체육회, 스포츠 개혁을 위한 '9대 혁신 과제' 발표

이대호 연합뉴스기자

스포츠윤리센터의 존재 의의와 발전 방향성

[인터뷰] 체육계 자정 넘은 독립기관의 등장...스포츠윤리센터, 무엇을 하나?-②

권수연 MHN 기자

용인시체육회스포츠공정위, 2일 재심

'막말 논란' 오광환 용인시체육회장, 자격정지 3개월

이준구 뉴시스기자

경찰, 양측 조사 끝내고 수사 막바지

대구 피겨 코치, 제자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 당해...시민단체 "진상규명"

정준민 평화뉴스기자

용인시체육회 총회, 오광환 용인시체육회장에 스포츠공정위원 선임 전권 위임

‘선수 겸 의사’ 일본 육상 선수 은퇴 “의사로 다시 만나요”

김세훈 스포츠경향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대한체육회, 스포츠 개혁을 위한 '9대 혁신 과제' 발표

대한체육회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투명한 경영을 위한 '스포츠 개혁 혁신 과제'를 7일 발표했다.

'대한체육회를 더 나아가게, 체육인을 힘나게'라는 슬로건으로 체육계 전반 구조 개편을 포함한 9대 혁신 과제를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9대 혁신 과제는 ▲ 변화하는 대한체육회 ▲ 지방체육회 안정적 운영 ▲ 종목단체 고른 발전 ▲ 학생 운동 환경 조성 ▲ 선수·지도자 운동 환경 조성 ▲ 생활체육 선진화 ▲ 글로벌 중심 K-스포츠 육성 ▲ 대한체육회의 수익 플랫폼 구축 ▲ 심판 전문화다.

대한체육회는 "조직 공정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고, 체육인이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해 한국 체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체육인 목소리를 반영한 현장 중심 개혁 실현을 위해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과 체육인이 공감할 수 있는 소통 방법도 마련할 참이다.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은 "급변하는 환경에서 혁신 없이는 생존이 어렵다. 낡은 관행을 타파해 유연하고 창의적인 조직 문화 구축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면서 "이번 개혁과제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과제는 전국 체육인 의견을 수렴해 수립됐다.

유 회장은 "단기적인 변화가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근본적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개혁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뷰] 체육계 자정 넘은 독립기관의 등장... 스포츠윤리센터, 무엇을 하나?-②

2020년 6월 26일.

이 날은 경주시청 소속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선수인 고(故) 최숙현이 세상을 등진 날이다. 사유는 팀 감독과 팀 닥터, 선배들의 가혹행위였다. 당시 상습적 폭력과 폭언에 시달렸던 최숙현은 어머니에게 "가해자들의 죄를 밝혀달라"는 문자를 끝으로 세상을 떠났다. 앞서 인터뷰 1편을 통해 스포츠윤리센터의 존재 의의와 발전 방향성을 설명한 박지영 이사장은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언급했다.

박 이사장은 고 최숙현의 안타까운 사건을 가리켜 "스포츠윤리센터가 생겨나고 자리잡은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힘줘 말했다. 지난해 6월은 고 최숙현의 4주기였다. 박 이사장은 경북 성주군에 있는 선수의 납골당을 찾아가 고인을 추모했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한 해만 봐도 짐작할 수 있다. 최숙현이 세상을 떠난 해에 공식 출범했다. 그 이전에는 체육계 폭력·성폭력이나 여러 불공정 사안이 발생해도 대한체육회, 각 종목 연맹 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체육인이 겪는 인권침해와 비리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징계 요구 및 수사의뢰를 통해 체육계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박 이사장은 "기존에 '자체 자정'만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부분을 보완해, '공정하고 안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본 기능은 체육계 비윤리적 행위의 신고, 상담 접수다. 사건이 접수되면 조사관이 배정되고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한다. 여기에서 해당 단체나 체육인의 혐의, 비리가 사실로 드러나면 징계를 요구하거나 수사 의뢰를 결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단순히 여기서 그치는 것만은 아니다. 선수와 지도자의 고충을 듣고, 때에 따라서는 신고를 유도하기도 한다. 피해자에게는 일부 변호사비와 상담비용 등이 지원되기도 한다.

박 이사장은 그러면서도 "피해자가 신고를 겁내서 중간에 신고를 취소하거나, 제3자의 고발이 이뤄져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금만 복잡한 진술이 필요해지면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처럼 일반 운동선수조차 가혹행위에 대해 쉽지 않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장애인 체육계로 가면 이와 같은 상황은 더욱 심연에 빠진다.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체육인들의 경우는 신고 그 자체가 쉽지 않다. 예를 들면 농아인 선수들이 조사 과정에서 수어 통역 문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가해자 측 통역으로 인해 말 맞추기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장애인 체육 관계자와 MOU를 추진해, 조사관이 수어 기초를 배우고 통역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하지만, 이 역시 예산과 인력 한계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스포츠윤리센터가 할 수 있는 조사 범위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수사하고, 강력한 제재 및 법적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재정과 인력 제한으로 인해 사건을 잡아도 충분히 조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박 이사장은 임기 동안 센터의 존립 의의 및 기반을 다지고자 한다. 단순히 피해, 가해 선수를 잡아내서 처벌하고 주의를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다. 단기적 처벌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상기한 고 최숙현 사례 및 장애인 신고 난항 등 센터가 확보한 사례를 모아 결정례집·사례집으로 알리고, 체육계 단체와 언론을 통해 "사건사고 및 실제 사례 등을 주기적으로 환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 이사장은 "관행이라고 주장하면 면죄부가 됐던 시절은 지났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적극적으로 조사 사례·결과를 공개해 '잘못하면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막말 논란' 오광환 용인시체육회장, 자격정지 3개월

용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2일 막말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은 오광환 회장에 대해 자격 정지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용인시체육회 스포츠공위로부터 직원 인권 침해(언어 폭력)가 일부 인정돼 3개월 자격 정지된 오 회장은 경기도스포츠공위의 재심 통보에 따라 직무에 복귀했다.

이번 재심의에서 3개월 자격 정지가 결정됨에 따라 오 회장은 앞서 2개월여의 자격 정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28일 동안 자격이 정지된다.

이에 대해 오 회장이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경기도체육회 스포츠공위에서 이 사안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 회장은 직원과 공무원들에게 막말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고, 종목단체회장협의회를 겸한 회식 자리에서 성차별적 발언으로 공무원노조와 여성단체들의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대구 피겨 코치, 제자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 당해...시민단체 "진상규명"

대구지역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가 피겨 선수였던 제자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 당했다.

10년 전 아동 선수 시절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다. 피해자는 지난해 말 이 코치를 고소했다. 경찰은 현재 조사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빙상연맹은 경찰 조사가 나온 뒤 처분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전 피겨 선수 B씨(20대)는 지난해 12월 "아동 선수 시절 A코치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당했다"며 자신의 아동 선수 시절 코치였던 A씨를 대구 수성경찰서에 특수폭행, 상습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3일 밝혔다.

수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는 마쳤고, 수사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면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민감한 사안이며 2차 피해도 방지해야 하기 때문에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B씨 측은 "초등학생 선수 시절인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2014년~2016년 2월쯤 A코치에게 교육을 받던 중 폭행과 폭언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코치가 자신의 입 안에 손을 넣어 상처를 입혔다거나 ▲뱃살을 잡아 뜯어 살점이 떨어져 나가기도 했고 ▲스케이트 토(발 끝) 부분으로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의 피해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 A코치를 경찰에 고소한데 이어 지난 3월 경찰에 A코치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대구시빙상경기연맹에 A코치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냈다. B씨는 피겨 선수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 B씨 어머니와 지역 인권단체는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권운동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대구여성인권센터 등 13개 인권단체가 모인 '인권단체연석회의'는 3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아동 선수에게 가해진 폭력과 반인권적 행위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가해 코치 사과, 징계 ▲가해 코치의 폭력·인권침해에 대한 진상조사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스포츠 폭력과 괴롭힘은 피해자 개인에게 심대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고, 신뢰를 훼손시키는 등 커다란 해악을 끼치므로 결코 용납돼서는 안된다"면서 "그 동안 스포츠계의 폭력 종식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인권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들이 만들어졌지만 또다시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 A씨는 아동 선수였을 때 가해진 폭력이 트라우마가 돼 깊은 상처를 앓으며 살아가고 있다"면서 "하지만 대구시빙상연맹은 코치 폭력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함에도 폭력을 용인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B씨의 어머니 C씨는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삶을 사랑하지 못해 주어진 시간조차 포기하고 싶어하며 평생을 고통과 불안에 떨며 생활하고 있다"면서 "가해 코치가 행했던 행위들을 모두 인정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아동들에 대한 폭력과 인권침해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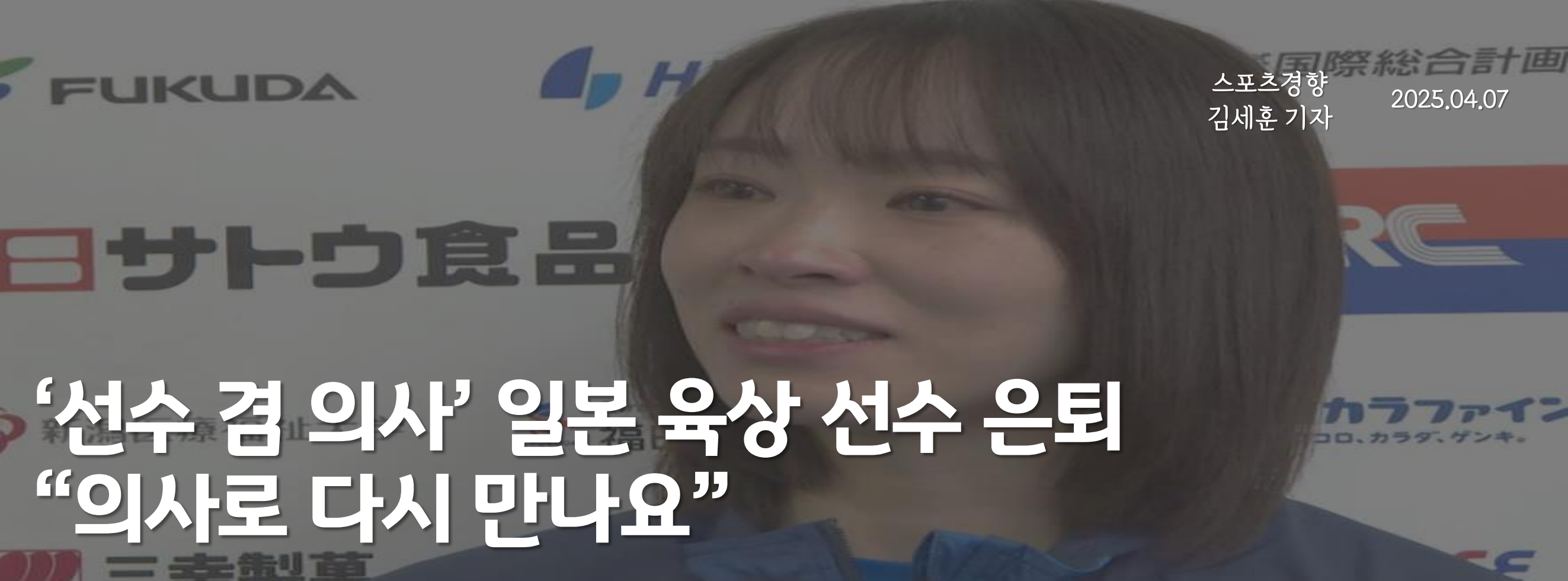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빙상경기연맹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조사를 통해 향후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반론을 듣기 위해 가해자로 지목된 코치의 연락처는 개인 정보를 이유로 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구시빙상경기연맹 관계자는 "현재 경찰 수사 중이니 결과가 나온 뒤 연맹 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지면 처분을 고려하겠다"면서 "십수년 전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대구시체육회 경기운영부 관계자는 "기자회견을 보고 사건을 처음 알았다"면서 "경위나 경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 단계라 별도로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했다.

코치 A씨의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연락을 시도했으나 빙상연맹 측은 "개인 정보를 이유로 연락처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자료 출처: <https://www.pn.or.kr/news/articleView.html?idxno=31876>



‘선수 겸 의사’ 일본 육상 선수 은퇴 “의사로 다시 만나요”

의사와 육상 선수라는 소위 ‘이도류’의 삶을 살아온 일본 중거리 육상 선수 히로타 유키(30·알비렉스 러닝클럽)가 공식 은퇴를 발표했다. 히로타는 지난 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립이 힘들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정말 보람 있었다”며 눈물을 보였다.

히로타는 고교 시절 전국 대회에서 여자 800m 종목에서 우승하며 주목받았고, 이후 의대에 진학해 육상과 학업을 병행했다. 2020년 의대를 졸업한 후에는 의사로 바로 진출하지 않고 도쿄 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선수 생활에 집중했다. 2021년 일본선수권대회에서 지역 신기록을 세우며 준우승했지만, 아쉽게도 올림픽 출전에는 실패했다. 이후 그는 다시 의사의 길을 택해 병원에서 레지던트로 근무하면서도, 현역 선수로서의 훈련도 꾸준히 이어왔다.

이처럼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온 경험에 대해 히로타는 “쉽지 않았지만, 주변의 응원과 미소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다”며 “스포츠와 의료라는 서로 다른 영역을 모두 경험한 덕분에 지역에 대한 애정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학생 시절부터 문무를 겸비한 삶으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준 히로타는 “경기장에서 ‘TV에서 봤어요’라며 응원해주는 사람들, 병원에서는 손편지나 그림을 건네준 아이들 덕분에 이 모든 시간이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다. 은퇴 후 그는 의사로서 현역 선수들을 지원하는 새로운 진로를 준비하고 있다.

주간 스포츠 소식

용인 반다비체육센터·백암초 학교복합시설 중앙투자위 통과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07_0003128662

아이들에게 스포츠 선물...체육공단, 단기 스포츠 체험 지원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4075803i>

줄넘기, 생활체육으로 자리잡아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459161?ref=naver>

[안산소식]드림스타트 영유아 '신나는 놀이 체육 교실' 등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07_0003128812

공주시, 전천후 시립테니스장 준공...쾌적한 체육환경 조성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682394>

유승민 체육회장, 바흐 IOC 위원장과 면담차 7일 출국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5029500007?input=1195m>

경남장애인체육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성공 개최 전폭 지원"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560829>

울산교육청,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단 운영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503281431018682edd30pn2gj_30

체육공단, 유·청소년에 프로스포츠 경기관람권 지원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03_0003125642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www.sportscm.org/%ED%9B%84%EC%9B%90%ED%95%98%EA%B8%B0>